

《 _____ 일본어 세특 보고서 자료 》

하이에듀

주제	진로 관련 심화탐구 보고서
요약	<p>일본의 학교 생활 관련 교과 내용을 학습한 후, 일본 학교 문화에 대한 심화 탐구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체육 교육보다는 '교육 분야' 전반에 가까운 탐구 주제이지만, 체육 부활동 등에서 체육 교사의 업무 과중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강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p> <p>아래의 작성 가이드라인과 참고 자료 내용을 숙지하고, 직접 서론-본론-결론 형태로 글을 작성하면 됩니다. 각 부분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아래의 작성 예시에서 확인하고,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덧붙여 세특 보고서를 완성하면 됩니다.</p>

[작성 가이드라인]

주제: 일본 교사의 지위와 교사 기피 현상

1. 서론

1) 탐구 동기

- 해당 주제를 선정하여 탐구를 진행하게 된 동기를 작성하면 됩니다.
- 개인적인 경험이나 교과 내용을 학습하고 궁금했던 점을 연결하여 제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작성 예시>

일본 고등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교과 내용을 학습하고, 특색 있는 학교 문화로서 부활동에 대한 기사를 스크랩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학생들이 체육 관련 부활동에 다수 참여한다는 것을 접했지만, 이러한 부활동을 지원하고 감독하는 교사에 대한 대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필두로 일본에서 교사의 지위와 권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2) 탐구 목적

- 본 탐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탐구에서 다룰 예정인 내용들을 언급하면 됨

니다.

<작성 예시>

따라서, 본 탐구를 통해 일본에서 교사의 지위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고, 일본의 교권 추락 실태를 한국의 최근 사례와 연결하여 탐구할 것이다. 이러한 탐구를 통해 일본의 학교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고, 교권과 관련된 문제들을 외부적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2. 본론

- 본론에서는 '일본의 교권 추락 현상과 교사 기피 현상'이라는 주제의 세부적인 내용을 여러 파트로 나누어서 제시하면 됩니다.
- 각 내용에서는 통계 자료나 기사 자료를 인용하여 제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1) 일본 교사의 업무 부담

OECD가 2019년 발표한 교사 노동 시간 통계에서 일본의 교사들은 1주일 간 노동 시간이 56시간으로 회원국 중에서 가장 긴 노동 시간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노동 시간 통계에서 주목할 점은 '과외활동 지도시간'이다. 이는 일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활동 문화의 이면이기도 한데, 즉 교사들이 교육자라는 명목으로 평균 7.5 시간에 해당하는 과외 활동 지도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시간과 더불어 부활동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자비를 활용하거나 운동부실에 있는 기기들을 구입하는데도 교사가 돈을 지불한 사례가 많다.. 이러한 부담은 점차 젊은 교사에게 가중되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부활동에 대한 부담이 과한 상태에서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교사들의 희생이 강제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족한 교사의 수를 보충하려고 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교사들을 마구잡이로 채용한 것이 악순환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의도로 채용된 교사 중 일부는 고학년 수업을 소화하지 못하거나 가정통신문과 같은 교사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지 못하여 핑크 난 업무를 다른 교사들이 나누어 맡게 되면서 하루에 10시간 이상 일하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2) 일본 교사의 교권

일본은 중,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자주 보도되는 국가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건 기사들을 통해 일본의 교권이 얼마나 추락한 상태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일본 교사의 교권 추락과 관련하여 자녀에 대한 지나친 관심으로 학교에 자기중심적이며 무리한 요구와 항의를 하는 '몬스터 페어런츠' 학부모가 가장 큰 원인으로 제시된다. 이들은 소년 범죄가 심각했던 시절에 학교를 다녔던 사람으로 청소년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에 대한 불신을 가져 학교 관계자들을 오랜 기간 괴롭히는 행동을 한다. 한국에서도 학부모

모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가 있는 것처럼 일본 역시 일부 학부모의 행동이 교사의 교권을 하락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3) 일본의 교사 기피 현상

일본의 교원 시험 경쟁률이나 각종 통계, 교사 관련 도서 등을 통해 일본의 교사 기피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공립학교 교원채용시험경쟁률은 매년 내려가며 해를 거듭할수록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2011년 4.5대 1이었던 경쟁률이 2022년 2.5대 1로 절반 수준이 되었으며 94%의 응답자가 장시간 노동 등 가혹한 노동환경을 원인으로 꼽았다. 즉,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한편 교권이 추락하면서 젊은층의 기피 현상이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나고야대학 우치다 료 교수가 진행한 '학교 업무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현직 교사 중 지난 2년간 교직을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 적 있는 교사가 전체의 65.8%에 달하였으며, 자신의 제자에게 교직을 권유하지 않겠다는 교사가 60%에 달하였다.

4) 한국 교육 분야에의 시사점

일본의 교사 업무 과중과 교권 침해, 이로 인한 교사 기피 현상에 대해 알아보며 유사한 길을 걷고 있는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우선, 탐구 과정에서 발견한 한국과 일본의 교사 업무 간 차이점 중 가장 큰 요소는 일본은 약 10년 전부터 교사의 개인 휴대폰 번호를 일절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에서는 교사의 개인 휴대폰 번호로 새벽이나 늦은 시간까지 학부모의 민원이 오는 한편, 교사의 SNS를 알아내어 사생활에까지 간섭할 정도로 교사의 개인 정보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 일본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학부모와 교사가 직접 소통하는 구조를 개선하여 악성 민원에 대한 교사의 부담을 덜게 할 수 있었고, 이러한 시스템을 한국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교권 하락의 현상을 먼저 경험한 일본의 사례를 통해 일본과 한국 모두 교육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분위기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사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학부모의 부당한 요구가 증가하는 것, 교사의 업무가 과중되는 것은 모두 학교가 만능이라는 사회적 인식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학생들의 모든 교육과 생활적인 책임을 학교에게 부담하는 사회적 인식과 분위기가 바뀐다면,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고 학부모 역시 학교에게 그리고 교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었던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3. 결론

- 결론에서는 탐구에서 언급했던 내용을 요약하면 됩니다.
- 또한, 탐구 내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배우고 느낀 점 등을 제시하면 됩니다.

<작성 예시>

본 탐구를 통해 일본 교사의 부담 과중과 교권 추락 현상 그리고 교사 기피 현상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다. 각종 통계 자료를 통해 일본 교사의 업무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러한 상황이 일본 교사의 교권 침해와 결합하여 대대적인 교사 기피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일본의 사례에서 그치지 않고 교권 하락과 관련하여 유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한국의 사례와 일본을 비교하여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었다.

탐구를 통해 미래의 체육 교사로서 교권과 관련된 교육 분야의 이슈를 학습할 수 있었다. 또한, 일본의 교육 문화와 교사의 업무에 대한 지식을 배울 수 있었고, 한국 교육에 시사점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교육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느낄 수도 있었다.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 학교에서의 생활과 교사의 역할은 중요하지만, 학교가 모든 것의 만능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교사로서의 역할만을 더욱 더 잘 임할 수 있는 교육 환경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되었다.

자료 1. 교사들의 희생이 떠받치는 일본 학교체육의 현실

일본이 각종 스포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때마다 생활체육, 학교체육에 대한 한일 비교가 곧잘 거론된다. WBC에서 한국과 일본의 실력 차가 그대로 드러나자, 일본과 한국의 고교 야구 기반 차를 지적하는 상투적인 반응도 나온다.

일본 내 학교 체육, 각종 과외 활동이 활발한 것은 사실이다. 이를 가리키는 말이 부활동(보통 부카츠部活라고 함)이다. 스포츠 외에도 취주악부 등 문화 관련 활동을 포괄한다.

2018년 도쿄대와 교육기업 베넷세가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대상 고교생 39.0%가 운동부에 가입해 있었고, 남학생은 48.3%가 가입했다. 여학생은 30.2%였다. 고교 1학년 남학생은 63.7%가 가입해 있었다. 다만 고3이 되면 가입률이 훨씬 떨어지는데, 이는 한국과 같이 대입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조사 대상 중학생의 운동부 가입율은 66.2%에 달했다. 이를 보면 일본에서 운동부 참가는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같은 학교 가운데는 한국 운동부처럼 장래 프로나 올림픽 선수 양성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선수를 키우는 곳도 있는 반면, 아마추어 느낌으로 하는 곳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전국 고교야구대회 고시엔대회에는 단골로 올라오는 학교가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과거 오사카 야구 명문고 PL학원이 유명한데, 이 학교는 거둬들인 학교폭력과 체벌이 문제가 돼 현시점에는 활동을 중지한 상황으로 사실상의 폐부라는 얘기도 나온다.

여담이지만 필자가 직접 체벌을 목격한 적도 있다.

2009년 기타큐슈를 여행할 때 일로, 주택가 인근 야구장에서 소년 야구 시합이 벌어지고 있었다.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선수들과 50-60대로 보이는 남자 감독이 있는 팀이었는데

데, 선수 하나가 제대로 플레이하지 못했다고 판단됐는지, 덕아웃으로 돌아온 그 아이의 뺨을 감독이 사정없이 때렸다. 관중 자리에는 부모로 보이는 이들도 있었으나 딱히 제지하는 사람은 없었다. 규슈가 일본에서도 특히 가부장적 문화가 남아 있는 지역으로 불리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대놓고 폭력을 휘두르는 일은 한국에서도 잘 없었기에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가자. 이처럼 일본 문화의 하나가 된 학교 부활동은 어떤 식으로 지탱되고 있을까.

2년 전 도쿄 내 고등학교에서 단기 수업을 담당할 일이 있었다. 당시 해당 학교에서 관리 역할을 맡은 남자 선생님은 늘 운동복을 입고 있었다. 그래서 담당이 체육이겠거니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학생이 “저 선생님 담당 과목은 수학”이라고 알려줬다. 의외라 생각해 왜 운동복을 입고 있는지 물으니 “축구부 고문 선생님이라서”라는 답이 돌아왔다. 원래부터 부활동 고문을 운동과 별 관련 없는 교사들이 맡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현장에서 다시금 느낀 순간이었다.

이 에피소드는 일본 부활동의 저력과 구조적 문제를 동시에 보여준다. 일선 교사들이 학생들의 부활동을 지원하는 ‘미풍양속’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일까?

단순하다. 부활동 고문 역할이 대부분 업무 시간 외에 이뤄지고 있음에도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고, 오히려 자비를 들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활동의 큰 부담은 일본 젊은층이 교사 지원을 꺼리는 사회적 문제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OECD가 2019년 발표한 교사 노동시간 통계는 일본 교사들의 부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1주일간 노동시간이 56시간으로 회원국 중에서 가장 길었는데, 그 가운데서 눈에 띄는 것이 과외활동 지도시간이다. 7.5시간을 기록해 다른 나라의 평균 1.9시간의 3배를 넘었다. 교육자라는 명목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는 게 현실인 셈이다.

관련된 최근 기사를 보면 자비로 부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된다. 예를 들어, 연습 시합 참가를 위해 기름값, 합숙비, 대회 참가비를 부담해야 한다면, 운동부실에 있는 트레이닝 머신을 사는 데도 교사가 돈을 낸 사례가 있었다. 모든 학교가 이런 상황은 아니겠으나, 부활동에 정부나 학교 측 지원이 이뤄지는 일이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의 도쿄대, 베넷세 자료를 다시 보면 교사들이 느끼는 구체적인 부담이 드러난다. ‘교재준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다’, ‘작성해야 하는 사무서류가 많다’는 데 대해 70% 이상의 교사들이 긍정했고, 조사 대상 중학교 교사의 63.6%, 고교 교사의 49.7%가 ‘부활동 지도가 부담’이라고 대답했다. 그렇기에 ‘외부지도원 임용’에 대해서는 전체의 80% 이상이 찬성하고 있고, ‘부활동 지도는, 지역사회나 민간기업에 맡겨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반수 이상이 긍정적으로 답했다.

특히 최근의 문제는 부담이 점차 젊은 교사에게 가중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있었던 젊은 교사들의 좌담회에서는 한 교사가 “학교에서 어떤 부활동을 맡게 될지는 순전히 ‘뽑기’”라면서 “거절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어렵다”고 밝혔고, 축구선수 경험이 있는 다른 교사는 “일단 맡아서 하다보니 지역 축구협회 지부장까지 떠맡아 부담이 커졌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교사들의 희생이 반쯤 강제되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2016년에는 “부활동 고문을 맡을지 선택권을 교사에게 달라”는 인터넷 청원운동에 3개월 안되는 시기 2만명 이상의 서명이 모이는 일도 있었다.

이 때문에 공립학교 교원채용시험 경쟁률은 매년 내려가며 지난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교사들의 부담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저출산 고령화 기조에도 일본 정부가 채용 인원을 늘려온 데 반해, 젊은층의 기피가 영향을 끼친 이중적 요인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와 학계에서도 각종 부담경감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뾰족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교내 부활동이 당연하다는 일본 사회 인식과, 그동안 교사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성립돼온 구조가 맞물려 단기간 큰 개선책이 나오기는 어려울 듯하다.

일본 정부는 2018년 부활동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학기 중에는 최소 2일의 휴식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평일 중 하루, 주말 중 하루를 쉬도록 하고, 주말에 대회가 있을 경우 평일을 대체 휴일로 하라는 내용까지 담았다. 시간에 대해서도 길어도 하루 2시간 정도, 학교 휴업일에는 3시간 정도로 하되, 가능한 한 단시간에 합리적이고 효율적, 효과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한국에서는 일본 학교체육의 ‘저력’을 상투적으로 논하는 일이 많으나 이 같은 교사들의 희생은 고려되지 않는 듯하다. 일본 교사들 사이에서도 “더 이상 지금과 같은 희생만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한국 학교가 일본 모델을 그대로 따라가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된다.

출처: <https://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04>

자료 2. [교육현장에서] 일본 교사는 어떻게 기피 직업이 되었을까

일본에서 교사는 기피 직업이 되어가는 중이다. 일본의 몇몇 학교에서는 교사가 부족해서 새 학기에 임시 담임교사로 교장, 교감이나 부장 교사가 들어가거나, 수업을 자율학습으로 대체하는 일까지 벌어진다고 한다. 한국에선 상상하기 힘든 파행이라고 불릴법한 일이 일본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다. 어쩌다가 교사가 없어졌을까.

20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 경쟁률은 12:1이 넘었다. 끝없이 올라갈 것 같던 경쟁률은 꾸준히 줄어서 2021년에 2.6:1로 5배 가까이 감소했다. 중, 고교 교원 채용 응시자 수도 작년에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선 현장에서 교사가 부족한 탓에 뽑는 인원은 늘어났는데 응시율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상황이다.

일본에서 교사가 비인기 직업이 된 이유는 여러 가지다. 먼저 OECD 회원국의 교사 중 일본 교사의 근무 시간이 가장 길고 처우가 열악하다고 소문이 자자하다. 워라밸이 붕괴된 대표적인 직업 중 하나가 교사이다. 일본 법정 근무 시간이 주 40시간인데 반해 상당수 교사가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을 많이 만큼 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한 달에 80시간 이상 야근해도 전체 수당이 10만 원일 정도로 보상이 적다. 적은 수당에 살인적인 근무 환경이 더해지니 버티는 사람이 대단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부족한 교사 수를 보충하려고 학력이 떨어지는 교사를 마구잡이로 채용한 것도 업무량을 늘리는 악순환에 한 축을 담당했다. 교사 중 일부는 어려운 고학년 수업을 소화하지 못하거나 가정통신문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할 정도로 수준이 떨어진다. 교사의 기본 자질인 수업이 삐걱거리는데 부가적인 행정 업무 처리에 미흡함이 있는 건 당연한 일이다. 핑크 난 업무를 나머지 교사들이 나누어 떠맡게 되면서 매일 하루에 10시간 이상 일하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런 상황에 교권이 바닥없이 추락한 것도 교사의 인기를 없애는데 한몫했다. 일본의 중,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교사를 때려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사건이 크게 보도된 적이 있다. 알려진 교권 침해 사례로 따지면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빠지지 않는다. 여기에 '몬스터 페어런츠'라고 불리는 학부모의 존재가 있다.

몬스터 페어런츠는 학부모 중 자녀에 대한 관심이 지나쳐서 학교에 자기중심적이고 터무니 없는 요구와 항의를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이들은 일본에 이지메라는 단어가 등장했고 소년 범죄가 특히 심각했던 시절에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이다. 본인의 청소년기 경험을 기반으로 교육제도와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있으며, 요즘 시대 트렌드인 극심한 개인주의 자들이기도 하다. 한번 학교에 대해 기분이 상하면 학교 관계자들을 수개월, 심하면 수년에 걸쳐 괴롭힌다. 도쿄 신주쿠 구립 초등학교 여교사가 교단에 선지 불과 2개월 만에 과중한 업무량과 극성스러운 학부모에 시달리다가 우울증에 걸려 자살한 사건이 있고, 사이타마현의 보육소장 역시 학부모에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분신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모두 학부모의 괴롭힘이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었다.

일본 정부의 교원 수급 관련 정책이 실패한 것도 교사 부족에 영향을 끼쳤다. 일본 문부과 학생은 저출생의 영향으로 학생 수가 줄어든 것으로 예측하고 1980년대 후반부터 국립 교원 양성과정 입학 비율을 절반으로 줄였다. 초반에는 합리적인 정책으로 보였으나 일본의 2차 베이비붐 세대의 교사들이 대거 은퇴하면서 교사 부족 현상이 시작됐고,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일본에서 벌어진 문제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한국에서 일어난 일들과 비슷한 상황임을 알아챌 수 있다. 일본의 문화는 한국보다 10년에서 20년 정도 앞선다는 말이 있다. 일본에서 유행하던 게 곧 한국의 현실로 다가온다는 말이다. 누군가 한국 교사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일본을 보게 하면 될 듯하다.

출처: <https://www.kgnews.co.kr/mobile/article.html?no=726510>

추가 자료

1. 한국과 다른 일본의 교권 보호, 학부모가 교사에 전화질 못해

출처: <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346>

2. [인터뷰] "학부모 악마화는 해법 아냐" 교권 붕괴 먼저 겪은 일본서 배운다

출처: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73008110002328>

3. 교권도 日이 먼저 추락...日 교사 급여, OECD 평균 아래

출처: <https://www.fnnews.com/news/202309150750424998>

4. 선생님이 존경받지 못하고, 교사가 기피 직업이 된 일본

출처: <https://brunch.co.kr/@thesklee/267>